

# 여수 남면 비렁길, 반값으로 간다...여객선 운임 한시적 반값 지원



##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돌산 신기~남면 여천 항로 코로나19 여파 이용객 줄어들어 섬 관광 활성화 나서

여수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돌산 신기~남면 여천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타 지역민)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 중 절반은 전라남도가, 나머지 절반은 여수시가 지원하며, 이에 따라 타 지역민이 해당 항로를 이용할 경우 현재 운임의 반값인 3,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여객운임 할인 혜택은 전라남도의 지

침에 따라 12월 28까지 적용하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당초 여수시는 도비 보조를 받아 여수~거문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운임(50%)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들어 따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항로의 운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전라남도도 논의해왔다.

여수시는 비교적 운항거리가 짧고 금오도를 종점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신기~여천 항로를 건의한 끝에 전라남도도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한시적인 운임 지원을 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금오도 여객선에 운임을 지원하게 되어 섬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회 관광객들이 저렴한 운임으로 편리하게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광양시,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부지 확정 지역특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기대

광양시는 광양만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과 관련해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지선정위원회가 연수원 부지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공단에서 최종 선정 결과를 시에 알렸다고 밝혔다. 확정된 부지는 태인동 1805번지 일원 사유지(32,995㎡)로 국비 286억 원이 투입되며, 강의실과 강당, 사무실, 기숙사 등 연수시설을 포함해 컨벤션, 체육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구성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 연수원 유치 이후 연수원의 추진

방향에 맞는 광양만권 지역의 환경·문화적 인프라 활용과 '전국단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 부지 추천, 지속적인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룬 결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실시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연수원이 완공되면 철강, 석유화학, 우주항공, 방위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특선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 양성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김현근기자

## 고흥군,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 갯머리 힐링쉼터·게이트볼장·주차장 조성

고흥군은 지난 22일 포두면 길두리 갯머리 힐링쉼터 광장에서 포두면 사회단체 및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23㎡, 지상 2층 규모로 갯머리 힐링쉼터 건립을 완료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 남·녀 목욕탕과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종합 세미나실과 체력 단련실이 갖춰져 있다. 또한 482㎡ 규모의 게이트볼장과 함께 부대시설로는 버스 승강장과 주차장 67면이 조성됐다. 이 시설물이 완공됨에 따라 고흥군은 새롭



게 조성된 다양한 시설물을 기반으로 포두면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문화와 복지가 융합된 포두면민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조곡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요리교실 성과발표회 열어

### 독거남성 위한 '행복한 동행, 따뜻한 나눔밥상' 요리교실 감동 공유



순천시 조곡동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조성중)는 최근 '행복한 동행, 따뜻한 나눔밥상'

상'요리교실의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 1년간 조곡동 마중물

보장협의체가 추진했던 요리교실의 활동 모습을 정리하며 격려의 시간을 갖고, 취약계층에게 실습요리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행복한 동행, 따뜻한 나눔밥상' 요리교실은 2022년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영양 빈곤층인 독거남성과 노인들에게 밀반찬 조리 시연 및 위원들의 1:1 요리실습으로 대상자 스스로가 식사를 쟁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선화 조곡동장은 "그동안의 활동 모습을 보니 한해 동안 활동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함께했던 참여자들이 생각나 마음이 찡했다."며 "메뉴 선정부터 실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힘써주신 요리강사 손운자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보성군, 2022년 적극행정·군정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보성군은 지난 22일부터 2일간,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산하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보성군 군정혁신·적극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세대공감을 이루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혁신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조직문화 연극은 물론 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행정혁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방화시대 선진행정을 선도하는 혁신역량 강화로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공무원들의 패러다임 변화와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라남도 적극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군정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군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